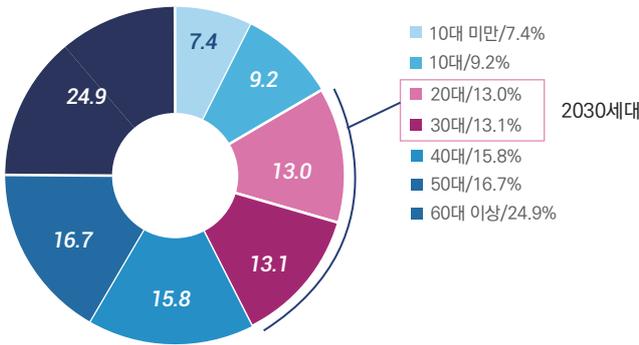


MZ세대의 해양수산 인식

우리나라 MZ세대는 약 1,34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6.1%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MZ세대를 대상으로 해양수산 인식 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MZ세대들은 해양수산에 대한 친밀도나 관심도는 낮게 평가한 반면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Z세대들의 해양수산 인식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자.

MZ세대란?

- MZ세대는 밀레니얼(Millennial) 세대인 1980~1994년생과 1995~2004년에 태어난 Z세대를 합쳐서 일컫는 말 (단, MZ세대를 구분은 학술적으로 정립되거나 통일된 개념은 아니지만 통상 현재 20대와 30대, 즉 2030세대를 일컫음)



-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우리나라의 2030세대는 약 1,34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6.1%를 차지하며 만 60세 이상 인구 약 1,288만명(24.9%)보다 많음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1년 9월말 기준)

MZ세대의 특징

● MZ세대의 주요 키워드

여가 중시, 현실성
 워라밸 중시, 노력 대비 보상과 현재 중시
 # 워라밸, 율로(YOLO), FIRE족

환경·윤리적 가치 중시, 가치 소비
 가치관·신념기반 소비 투자
 # 돈줄문화, 미닝아웃, 선한 소비, 선취력

다양성 인정, 다양한 삶 추구
 타인의 취향 존중, 선택적 삶의 방식
 # 다만추, 후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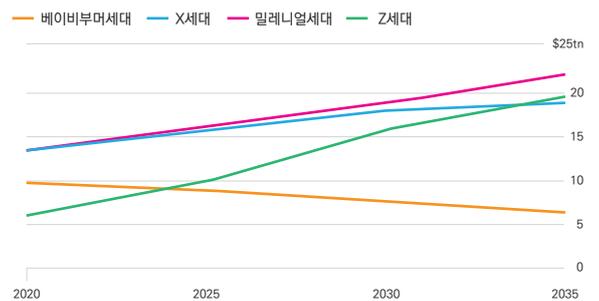
자기 중심적 소비
 나만의 스타일 추구, 맞춤형
 # 내돈내산

디지털 네이티브
 신기술에 친숙, SNS를 통해 가치관 신념 표현
 # 소피커

재미추구
 즐기는 소비, 이색적이 경험추구
 # 플렉스, 클라우드소비

● 전 세계 세대별 구매력 전망

- World Data Lab에 따르면 MZ세대의 글로벌 구매력은 2020년 X세대를 추월하였고 이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



자료: World Data L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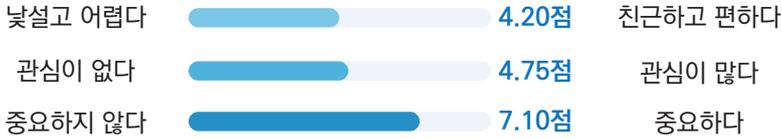
	X세대 1970년	밀레니얼세대 1980년	MZ세대 1990년	Z세대 2000년
상징제품	TV	스마트폰, 태플릿	유튜브, 온라인, 패션, 소비바, 크리에이터, 공유	유튜브, 웨어러블
관심사	워라밸	자유	개인의 행복	개인의 행복
커뮤니케이션	이메일, 문자	소셜미디어(SNS)	영상통화	영상통화
미디어 이용	디지털 이주민	디지털 유목민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네이티브
직업의식	개인 포트폴리오, 전문능력	디지털 창업, 조직을 위해서 아니라 함께 일함	유연한 고용, 분업과 부업 멀티태스킹	유연한 고용, 분업과 부업 멀티태스킹
키워드	개성, 개인주의, 대중문화, 서태지	자기계발, YOLO, 가심비, 핫플레이스, 펍수	콘텐츠, 크리에이터, 스트리밍, 급식체	콘텐츠, 크리에이터, 스트리밍, 급식체

자료: 삼정KPMG 경제연구원, 新소비 세대와 의식주 라이프(2019.5), 서울연구원, 월간 서울 동향 리포트(2019.12)

MZ세대의 해양수산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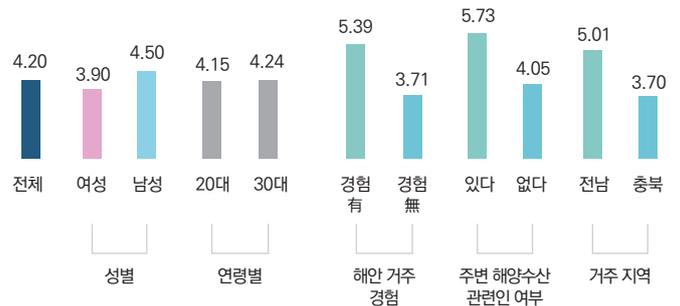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미래세대인 MZ세대의 해양수산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3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2030세대의 해양수산 분야 인식도 조사」를 실시
- 조사는 전문조사기관인 (주)한국정책리서치에 의뢰하여 2021년 7월 16일부터 7월 28일까지 2주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웹 조사를 실시(응답율 84.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최대허용 표본오차 ±0.063%포인트임)

MZ세대 해양수산에 대한 일반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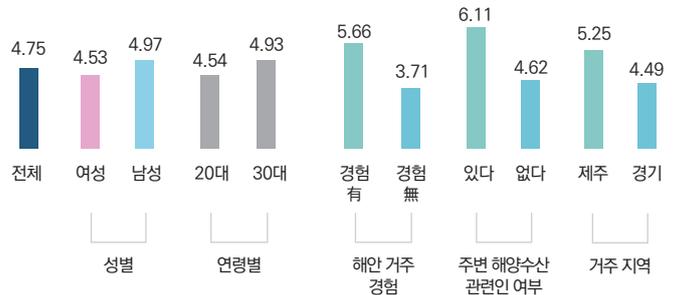
● 친밀도 4.20점

- MZ 세대의 해양수산 분야 친밀도는 평균 4.20점으로 절반에 못미침
-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보다 '30대'에서 높았음
- 해안거주 경험이 '없다'보다 '있다'에서, 주변에 해양수산 관련인이 '없다'보다 '있다'에서 높게 나타남
- 거주지역별로는 '전남'에서 가장 높았고, 바다가 없는 내륙 시도 (충북, 대전, 대구)에서 상대적으로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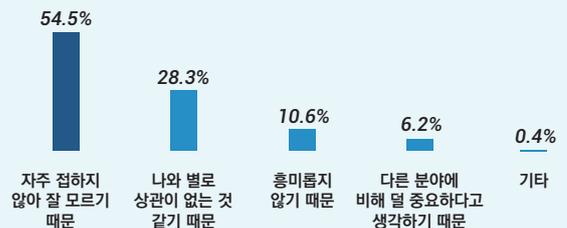
● 관심도 4.75점

- 해양수산 분야 관심도는 평균 4.75점으로 친밀도와 마찬가지로 절반 수준을 넘지 못했음
- 성별로는 '남성'의 평균 점수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보다 '30대'에서 높았음
- 해안거주 경험이 '없다'보다 '있다'에서, 주변에 해양수산 관련인이 '없다'보다 '있다'에서 높게 나타남
- 거주지역별로는 '제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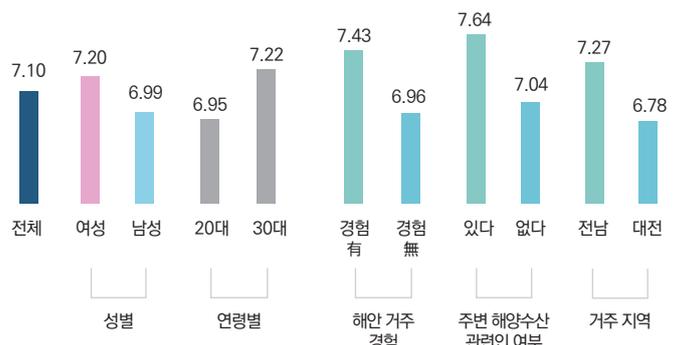
관심이 없는 이유

- 해양수산 분야에 관심이 적은 이유로 '자주 접하지 않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 수의 54.5%를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기 때문' (28.3%), '흥미롭지 않기 때문'(10.6%) 순



● 중요도 7.10점

- 해양수산 분야 중요도 인식은 평균 7.10점으로 높게 나타남
- MZ 세대에게 해양수산은 친밀도와 관심도는 떨어지지만 해양수산을 중요하게 보고 있음을 의미
- 특히 '여성'의 평균 점수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보다 '30대'에서 높았음
- 해안거주 경험이 '없다'보다 '있다'에서 주변에 해양수산 관련인이 '없다'보다 '있다'에서 높게 나타남
- 거주지역별로는 '전남'에서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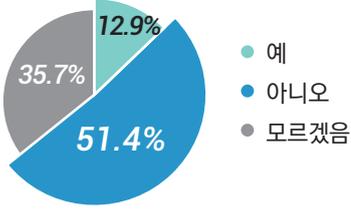




MZ세대 취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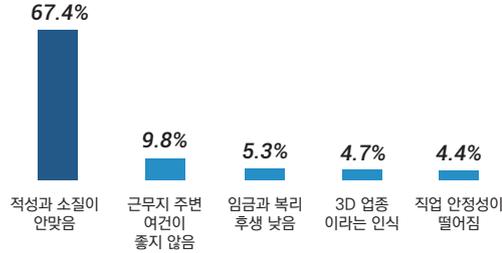
● 취업 희망 여부

- 10명 중 1명 정도만 해양수산 분야에 취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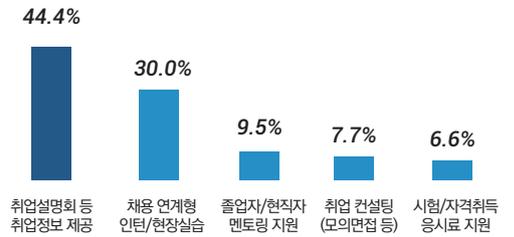
● 취업할 의향이 없는 이유

- 해양수산에 취업할 생각이 없는 이유로 '적성과 소질이 맞지 않기 때문'(67.4%)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근무지 주변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9.8%), '임금과 복리후생이 낮기 때문'(5.3%) 순



●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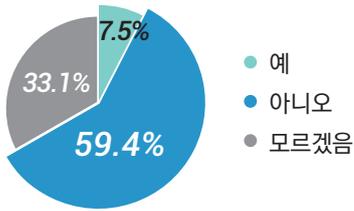
- 해양수산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으로 '취업설명회 등 취업정보 제공'(44.4%)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채용 연계형 인턴/현장실습 지원'(30.8%), '졸업자/현직자 멘토링 지원'(9.5%) 순



MZ세대 창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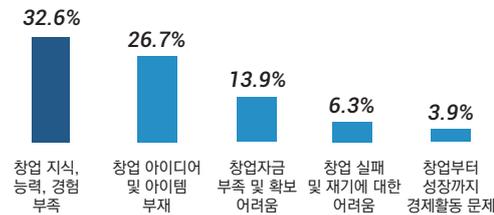
● 창업하였거나 창업할 의향

- 10명 중 6명은 해양수산 분야에서 창업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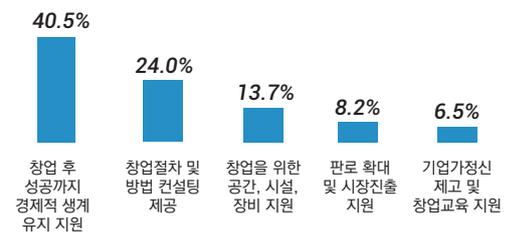
● 창업할 의향이 없는 이유

- 해양수산 분야에서 창업할 생각이 없는 이유로 '창업 지식, 능력, 경험 부족'(32.6%)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창업 아이디어 및 아이템 부재'(26.7%), '창업자금부족 및 확보 어려움'(13.9%) 순



● 창업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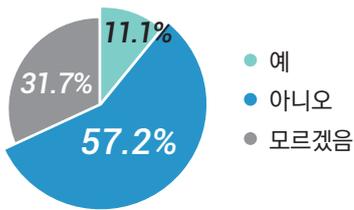
- 해양수산 분야에서 창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으로 '창업 후 성공까지 경제적 생계유지 지원'(40.5%)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창업절차 및 방법컨설팅 제공'(24.0%), '창업을 위한 공간, 시설, 장비 지원'(13.7%) 순



MZ세대 귀어귀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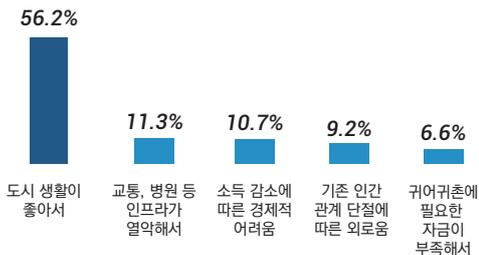
● 귀어귀촌했거나 귀어귀촌할 의향

- 귀어귀촌 의향에 '아니오'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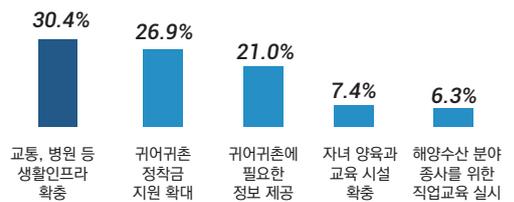
● 귀어귀촌 생각이 없는 이유

- 귀어귀촌을 할 생각이 없는 이유로 '도시 생활이 좋아서'(56.2%)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교통, 병원 등 인프라가 열악해서'(11.3%), '소득 감소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10.7%) 순



● 귀어귀촌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 귀어귀촌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으로 '교통, 병원 등 생활인프라 확충'(30.4%)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귀어귀촌 정착금 지원 확대'(26.9%), '귀어귀촌에 필요한 정보 제공'(21.0%) 순



MZ세대들의 생각하는 해양수산 분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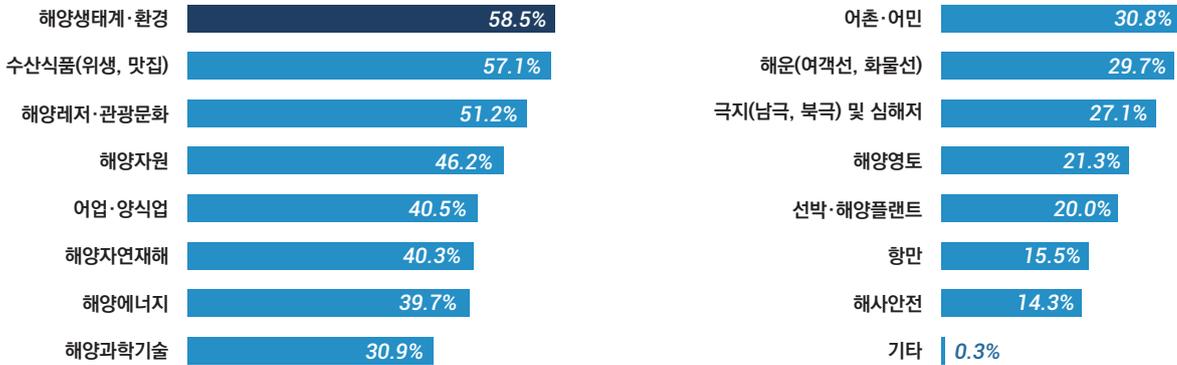
● MZ세대들은 해양수산에 대한 각각의 의견

- 해양수산에 대한 각각의 의견에 '생태계와 인류문명에 중요'가 7.77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식량안보에 기여한다' 7.43점, '세계무역(물류)에 필수적' 7.36점으로 뒤를 이음
- 반면 해양수산 분야가 '사회·문화적 공익 증진'(6.34점), '미래 성장동력'(6.54점), '일자리 창출'(6.68점), '향후 발전가능성이 큼'(6.81점), '글로벌 비즈니스' (6.92점)는 평균(7.03점)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
- 성별, 연령 및 지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해안 거주경험이 있거나 주변에 해양수산 관련인이 있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남



● MZ세대가 평소 관심을 갖고 있는 해양수산 분야

- MZ세대는 '해양생태계·환경'(58.5%)에 가장 관심이 많았으며, 이어서 '수산식품(위생, 맛집)'(57.1%), '해양레저·관광문화'(51.2%) 순
- 여성의 경우 '수산식품(위생, 맛집)' (62.6%)이 가장 많았고, 남성은 '해양생태계, 환경'(55.7%) 응답이 가장 많았음
- 해안 거주 경험이 없거나 주변에 해양수산 관련인이 없는 경우에도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양생태계, 환경'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향후 5년 내 시급히 추진해야할 정책은?

- 향후 5년 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에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환경 조성'(59.1%)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안전한 먹거리로서 고품질·친환경 수산물 공급', '(50.5%),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수산 창업투자 활성화'(41.0%) 순
- 반면에 '통일 한반도 시대 대비 남북 해양수산 협력' (6.2%), '극지(남극, 북극), 심해저 등 해외시장 진출 확대'(14.5%)은 후순위로 나타남

